

한영옥 박사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형태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변기용(고려대학교 교육학과)

I. 전반적 소감

-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수행한 근래 보기 드문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함. 토론자는 87쪽에 달하는 긴 발제문을 하나 하나 줄쳐 가며 꼼꼼히 읽어 가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연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혁신(자치)학교"의 특징과 혁신(자치)학교 성공요인 혹은 실패요인은 토론자로서도 매우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이 연구를 매우 관심있게 보았음. 다만, 이 논문은 "혁신자치학교"라는 주제 측면에서의 키워드와 함께, 연구 접근방식면에서 "형태발생론적 접근"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발생론적 접근이 혁신자치학교 정책(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하나)의 연구에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보다 초점을 두어 토론문을 작성하였음
- 이 연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제 졸저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2015, 학지사): 한동대 사례연구"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그 후 형태발생론적 접근에 따라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과정을 분석하는 것과, 한동대 사례연구에서의 접근방식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자와 토론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음
- 발제문 자체가 87쪽으로 매우 길고,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아 스스로 이해를 위해 중요 부분을 하나씩 카피해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토론자가 생각해 본 것을 [토론자 생각] 방식으로 해당 부분에 일단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음.

II. 읽으면서 든 질문들: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과 관련

1. 형태발생론적 접근의 강점과 주요 개념

-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의 인과기제를 파악하는 과정 중심적 접근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를 연결하기 위한 시간 차원의 고려 등에서 이점(13)
-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것이 결국 대상이 놓여있는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즉 어떻게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는가에 관한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13)

- <형태발생(morphogenesis)>이라는 용어는 '시스템이 주어진 형태, 상태 또는 구조를 정교하게 만들거나 바꾸는 경향이 있는 과정'(13)
- <형태유지(morphostasis)>라는 용어는 시스템의 주어진 형태인 조직이나 상태를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경향(14)
- 구조의 영역(외부 세계)을 '구조'와 '문화'의 두 영역으로 구분
 - <'구조'>는 물질적 재화(사회 전반에 불규칙적으로 분포)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영역
 - <'문화'>는 사상과 신념의 세계로서, 명제적 지식의 세계와 신화, 의견, 이념의 세계를 모두 포함
 - <행위자성>은 구조와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영역
- ❖ 구조와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존재 할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자성에 의해 매개될 경우에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적 발현물(relational-emergents)

2.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

- 구조-행위자성이 실제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나 <분석적 차원>에서 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론적 유용성을 고려한 것
- <기본적인 공리>는 (a) 구조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변형하는 행위들보다 앞선다는 것, 그리고 (b) 구조적 정교화는 반드시 구조를 변형시킨 행위들보다 뒤에 일어난다
- 사회 세계를 구조(structure)·문화(culture), 행위자성(agency)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 조건화 → 상호작용 → 구조적 정교화'(형태발생)/구조 재생산(형태유지)의 과정으로 분석
- 분석적 이원론은 이러한 세 가지 창발적 속성의 결합에 따라 그것들의 생성력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이론화(19)

cf. 구조·문화와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형상화하고 재형성하는' 역동성을 살펴보는 도구

[토론자 생각] agency(행위자성) vs. agent(행위자)

☑ 밑 줄 친 부분에서 '행위자'라고 하지 않고 '행위자성'을 사회세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 용어 사용의 비밀관성: [행위자성 VS. 행위자] 여기서 "구조, 문화, 행위자"가 행위자성을 매개로 상호영향을 미치며 형태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한 주기의 결과 생성된 '구조적 정교화'는 이어지는 주기의 '구조적 조건화'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형태발생론적 주기가 진행된다
-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구조·문화, 행위자성은 서로의 관계 속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형 및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형태발생과 형태유지로 이어진다
- '사회(구조)'는 가상적(virtual)존재가 아니라 행위자들을 매개로 하여 발현하는(emergent) 것으로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ies)'> 이란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기반

을 두어 나타나는 새로운 속성

- 구조의 발현적 속성은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 즉, **기존의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들이 매개하는 새로운 구조의 관계적 속성**이 (1) 필연적인가(necessary) - 상황의존적인가(contingent), (2) 상호보완적인가(compatible)-양립불가능한가(incompatible)에 따라 서로 다른 4가지의 상황논리를 구성하게 된다
 - <‘필연적(necessary)’ 관계>란 두 가지 이상의 구조적·문화적 조건이 내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통합되어있는 관계
 - <‘상황의존적(contingent)’ 관계>란 개방적인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기존의 사회시스템이나 문화와 새로운 구조나 문화의 내적 연관성이 낮고, 서로 우연적인 관계
 - <‘상호보완적(compatible)’ 관계>란 기존의 구조나 문화적 조건과 행위자가 매개하는 새로운 구조나 문화가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
 - <‘양립불가능(incompatible)’한 관계>란 기존의 구조나 문화에 대해 새로운 구조나 문화가 기득권을 가진 행위자의 성취 또는 만족을 방해하는 일련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관계

<표 II -1> 발현적 속성과 상황논리 (Archer(1995) p.218 재구성)

발현적 속성 emergent properties		구조적 상황논리 Structural Situational logic	문화적 상황논리 Cultural Situational logic
필연적 Necessary	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ies	보호 Protection	이익 보호 Protection of benefits
	양립불가능성 incompatibilities	타협 Compromise	수정 혼합 correction syncretism
상황의존적 Contingent	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ies	기회주의 Opportunism	실질적 자유 substantial freedom
	양립불가능성 incompatibilities	제거 Elimination	선택의 강요 forced of choice

- <사회의 구조, 문화적 인과적인 힘(causal power)>과 <주요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구조와 문화를 새롭게 변형하거나 재생산하는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ies)’의 인과적 메커니즘에 주목
- 이러한 인과적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Archer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밝혀내는 것**(19)

[토론자 생각]

☑ 그 것 뿐만 아니라, 구조나 문화가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 인간의 상호작용이 구조와 문화의 두 가지 효과에 의해 조건화된 맥락에서 일어난다. <‘조건화(Conditioning)’>란 선행적으로 이미 주어진 여건으로 인간 행위자성의 행사에 제약이나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 구조적·문화적 조건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상호작용 주기의 결과를 통해 형태발생(morphogenesis) 또는 -유지(-stasis)의 추가 주기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낸다

[토론자 생각]

☑ '조건화'가 바로 행위자에게 주어진 맥락(행위자의 행위와 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제도, 조직적 특성, 문화)이 아닐까?

- 인간 행위 주체들이 사회 구조를 창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행위 주체들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형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조건화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실천은 단지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를 바꾸려는 행위는 선행하는 구조라는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행위자는 항상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앞선 구조에 배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행위자'라는 것이다

[토론자 생각]

☑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매우 모호한 설명이 아닐까?

☑ 이런 방식으로 "인간 행위 주체들이 사회 구조를 창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신제도주의의 설명처럼 "t 시점의 행위자는 t-1 시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t 시점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t+1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행위자에게 조건화된 맥락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닐까?

☑ 예컨대 "노명순(2006).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pp. 246-250) "에서 제시된 신제도주의적 분석틀 => 구조-제도-행위자의 연계

✓ 구조-제도-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t1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t2에서의 제도형성 및 제도변화로 나타난다. t2에서 형성 혹은 변화된 제도는 t3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 한편, t2와 t3에 걸쳐 일어난 행위자 및 제도 수준에서의 변화는 t4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구조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t4에서의 구조변화는 이어서 t5에서의 제도의 역동성 및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

✓ 이처럼 구조, 제도, 행위자가 각각 원인 및 결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에 의미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위자-제도-구조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각각이 원인이며 또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제도는 행위자 수준과 구조 수준을 매개한다.

- 분석적 이원론을 통해 대상의 변화(또는 안정)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문화적 조건화 상황논리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며, 그 결과 구조-문화 및 행위자의 조건의 변형 혹은 재생산의 과정을 살펴보는 논의가 필요

- <융합(conflation)적 경향>이란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

- <'하향 융합'>은 '구조 중심의 뒤섞임' =>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 경제구조주의(economizing structuralism), 규범적 기능주의(normative functionalism)등; 조건들은 있지만 행위들은 없다

- '상향 융합'은 '행위자 중심의 뒤섞임' => 신현상학파(neo-phenomenological school), 해석적 사회학(interpretative sociology),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등; 행위들은 있지만 조건들은 없다

- ‘중양 융합’은 구조와 행위의 관계가 시간성과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 시기만을 중심으로 뒤섞여’있는 불분명한 상태 => Giddens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 등; 행위와 조건들이 구분되지 않는다
- 구조만을 강조하거나 행위자성만을 강조하는 융합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 주체 사이의 접점을 검토하여 이론화 할 수 있도록 구조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구조의 제약과 행위자의 자율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 생각]

- ☑ 이 포인트는 형태발생론적 접근에만 차별화된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신제도주의에서도 제도변화와 관련한 구조와 행위자 양자 모두의 중요성과 관련 상당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러한 관점에 바탕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 오히려 <분석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잡한 설명 방식보다는 신제도주의적 관점, 특히 “제도변화가 주로 (1) 구조[제도의 상위 맥락 - 거시적 국내적 구조(Mahoney & Snyder, 1999)], (2) 제도(hard institutions - 법령, 정책 등 vs. Soft Institutions - 가치관, 태도, 문화, 관습 등), (3)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신제도주의적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 ☑ 형태발생론적 접근은 (1) 구조와 문화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 수행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는 연구자가 구조와 문화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가? (2) 학교 조직 연구에서 구조와 문화는 중층적으로 존재(예컨대 조직내의 구조와 문화, 조직 외부의 정책 하위체제의 구조와 문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와 문화의 중층적 구조를 아처의 분석틀에서 제대로 고려할 수 있는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측면은 없는가?

**** 참고자료:**

노명순(2006).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pp. 246-250)

이 논문에서 제시된 신제도주의적 분석틀과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이론의 설명 구조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구조:

구조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전쟁이나 혁명 등에 의해 급진적으로 변하기도 함으로써, 제도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적 수준에서 행위자의 이해관계, 목표, 선호, 능력의 극명한 노출과 대립을 초래하여 권력변화의 계기를 주기도 하므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때 구조와 행위자는 제도를 매개로 상호작용한다. 행위자는 제도를 통하여 구조를 형성하고, 구조는 제도와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한다. 관련 행위자들, 그리고 이들 행위자간에 설정된 제 관계망은 총체적으로 구조를 구성한다. 즉 구조는 행위자와 그 행위자 간 상호작용 양식을 규율하는 제도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는 행위자와 제도의 단순한 합은 아니다. 행위자와 제도로 구성되는 구조는 그 자체의 구성원리와 질서, 그리고 제약성을 갖는 특정 시점 혹은 특정분야에 설정되어 있는 질서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대입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계기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수준에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가령, 역사와 전통, 사회구조, 국정현실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입정책의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대입정책의 변화를 제약; 이 중에서 대입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인 변화의 의미를 줄 개연성이 높은 요소로 정치적 요소가 있다. 새로 등장한 정치세력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대입 정책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2) 제도

제도는 과거 행위자들의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다시 행위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속성을 가진다. 제도는 자기보호, 자기영속화, 자기표현의 속성을 통해 행위자의 행위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구속하게 된다. 이처럼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자체 지속성을 갖도록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수준에서의 분석대상은 대입정책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준 이념, 정책결정과정, 사회의식과 문화에 한정하여 분석

(3) 행위자

행위자는 목적의 최대달성을 위해 합리적.전략적 혹은 의도적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행위자는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재생산하는 변화의 주체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제도가 행위자의 행위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서, 동시에 제도는 행위자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고 재생산된다고 본다. 분석적.경험적으로 행위자와 제도 간 명백한 구분은 어렵고 중첩될 수도 있다....행위자의 본질적인 요소는 이해관계와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원자화된 개인이라기보다 집합적이어서 구체적인 제도에서 식별될 수 있다. 즉, 집합적 행위자가 이해관계와 능력을 행사할 경우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제도적 제약 하에서 행위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념을 활용하여 정책변화를 추진하거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기존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려 한다. 특히 중대한 전환점 시기에 행위자는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활용하여 행위의 결과를 정형화하고 목적달성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행위자는 이런 선택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는 제도의 제약을 받지만 동시에 행위자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갈등, 투쟁, 협상, 중재등)하여 기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김윤권, 2004).

대입정책의 주요 행위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자와 외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역할, 지위, 권력은 시기에 따라 행위의 비중, 지배권,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입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정부, 대학, 교육전문가, 언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적되고 있다. 대입정책의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는 대통령과 정부이며, 외부 행위자로는 대학, 학부모, 전문가, 언론, 교육계 등이 있다

(4) 구조-제도-행위자의 연계

구조-제도-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t1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t2에서의 제도형성 및 제도변화로 나타난다. t2에서 형성 혹은 변

화된 제도는 t3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 한편, t2와 t3에 걸쳐 일어난 행위자 및 제도 수준에서의 변화는 t4에 이르러 점진적으로 구조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t4에서의 구조변화는 이어서 t5에서의 제도의 역동성 및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 이처럼 구조, 제도, 행위자가 각각 원인 및 결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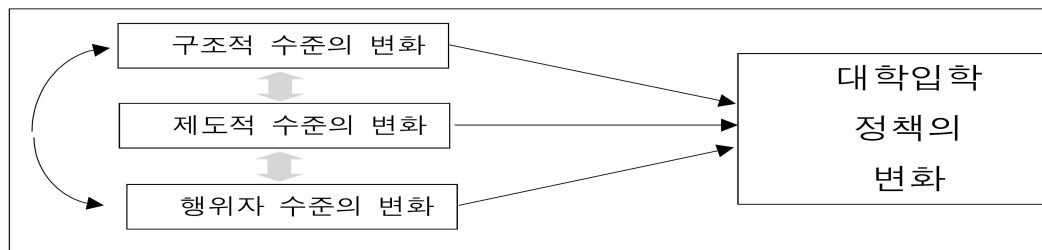
<표 1>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분석수준

분석수준		변화 요인
거시	구조	• 정치적 요인
중범위	제도	• 이념 • 정책결정과정 • 사회의식과 문화
미시	행위자	• 행위자: 대통령, 정부,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 언론, 교육계 • 행위자의 전략: 관련 집단간의 갈등과 타협, 협조·비협조

고려할 때에 의미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위자-제도-구조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각각이 원인이며 또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제도는 행위자 수준과 구조 수준을 매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 수준의 통합적 접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조의 잠재적인 문제가 축적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 사건, 충격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촉발기제는 행위자에게 변화의 자극과 계기를 제공한다. 둘째, 역사적 맥락에서 수립된 제도가 제도 외적 맥락인 거시적 구조의 충격을 받을 때, 제도는 자신의 생존, 안정, 지속 등을 견지하기 위해 제도가 보유한 강제력이나 정당성을 통해 행위자에게 일정한 통제, 구속, 지침 등을 가한다. 이때 제도는 행위자의 선호와 이익에 대한 정의, 행위자의 전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체적인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인의 선택 범위를 제약할 뿐 구체적인 선택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셋째, 구조적 수준의 자극과 계기를 받은 행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행위자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정책이념 등을 추구하기 위해 소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려 한다.

이상의 통합된 관점은 이론적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의 논의를 보다 엄밀화시켜 외적 타당성을 제고시켜 주며, 대입정책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관하여 보다 적실성있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분석틀

3. 형태 발생론의 설명구조

1) 구조적 문화적 조건화

- 사회 체계의 속성은 과거 행동의 총체적 결과이며 인간 행위자를 제약하거나 가능성을 제공하는 객관적 조건인 <구조>(물질적 조건 : 사회· 경제 체제, 제도, 법률, 규칙, 질서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역할)>와 <문화>(이념적 조건 : 사상, 신념, 지식, 이념, 가치, 규범과 이를 드러내는 행동, 언어, 담화)>로 존재한다. 또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위자의 후속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여기서 <‘조건화(conditioning)’>라는 개념은 단순히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구조와 문화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 힘과 행위자는 논리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조건적’이다. 여기서 매개(mediation)로서의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구조와 문화, 행위자의 생성력은 <행위자>의 매개를 통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 ...T¹ 단계에 주어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징(필연성과 상황의존성, 상호보완성과 양립불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제도(institutions)와 이념(ideas)의 구성과 서로 다른 상황논리와 특성을 기술한다. 구조적으로 네 가지 제도적 구성에 따라 ‘보호’, ‘타협’, ‘기회주의’, ‘제거’의 상황논리가 발생한다
- Archer(1995)가 분석적 이원론에서 파생된 방법론적 절차로 구조와 문화의 구성 조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상황 논리와 특성을 제시한 것은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구조적·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이 일정한 행위의 잠재성을 조건화하지만, 제시한 특징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행위자들의 행위자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Archer의 주장의 요점은 구조와 문화적 속성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면 관련된 행위자의 상황이 형성되는 방식에 더 큰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토론자 의견]

- ☑ 이걸 오히려 너무 예시로 제시된 구조, 문화적 조건과 상황 논리를 바이블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모든 질적연구는 이론적 틀을 초기 단계에서 연구를 가이드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삼아야지, 분석을 위한 강제적 틀이 되는 순간 분석의 역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질적연구의 핵심적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표 II-2> 제도의 구조적 조건과 상황논리 (Archer, 1995 P. 218~227, 재구성)

제도적 구성	상황논리	특징
필연적 상호보완성	보호	- 구조들 사이에 필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내부적인 연결이 있을 때, 제도들은 상호 강화되고, 서로 지원하며, 서로의 관점에서 일함. - 이는 혁신이나 다양화를 억압하지만 대신 전통주의의 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기보다 기존의 구조적 질서가 유지됨.
필연적 양립불가능성	타협	- 구조들 사이에 서로 필연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그들의 운영의 효과가 관계 자체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경우. - '모순(contradiction)'을 유발하여 잠재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지만, 타협을 선택함으로써 내적 형태 유지
상황의존적 상호보완성	기회주의	- 개방적 사회 체계로부터 비롯되며 특정 그룹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 - 서로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회주의 상황논리를 수반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성	제거	- 개방적 사회 체계 속에서 구조들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형성되는 경우. 질서있는 재생산에 불리한 사회적 분열이 조장. - 양측이 당사자에게 가장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상황논리에 참여함

<표 II-3> 문화적 조건과 상황논리 (Archer, 1995 P. 229~245, 재구성)

문화적 구성	상황논리	특징
필연적 상호보완성 병행적 상호보완	이익 보호	- 이념(idea)들 간에 일치하는 요소로 인해 서로 고착을 강화, 폐쇄에 가까운 동맹, 사회-문화적 통일성을 가지며 내부 변화를 억제함. - 사회문화적 재생산을 통해 공유된 아이디어와 보편적(common) 관행을 만들어 내고 통합된 공동체인 '질서의 섬'을 형성
필연적 양립불가능성 모순 억제	수정 혼합	-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념들 간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 사이에 충돌과 긴장이 발생하지만 이를 억제함. - 불일치를 조정하는 하는 수정 시도. 이념적 혼합주의(syncretism 즉, 관련되는 모순 요소들 간의 차이를 가라앉히고 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낳음.
상황의존적 상호보완성 느슨한 기회	실질적 자유	- 이념적 요소들이 우발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서로 병행이 가능함. 상황 논리는 실제로 4개 중 가장 느슨. - 문화적 자유 유희(free play)의 기회를 객관적으로 증가.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성 경쟁적 모순	선택의 강요	- 이념적 요소들이 우연적으로만 관련되어 서로를 종속하지 않으나 기본적인 불일치가 있으며, 각 요소들이 다 동시에 옹호 될 수 없음 - 선택의 강요, 봉쇄와 수정(containment and correction)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전략을 선택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함.

2)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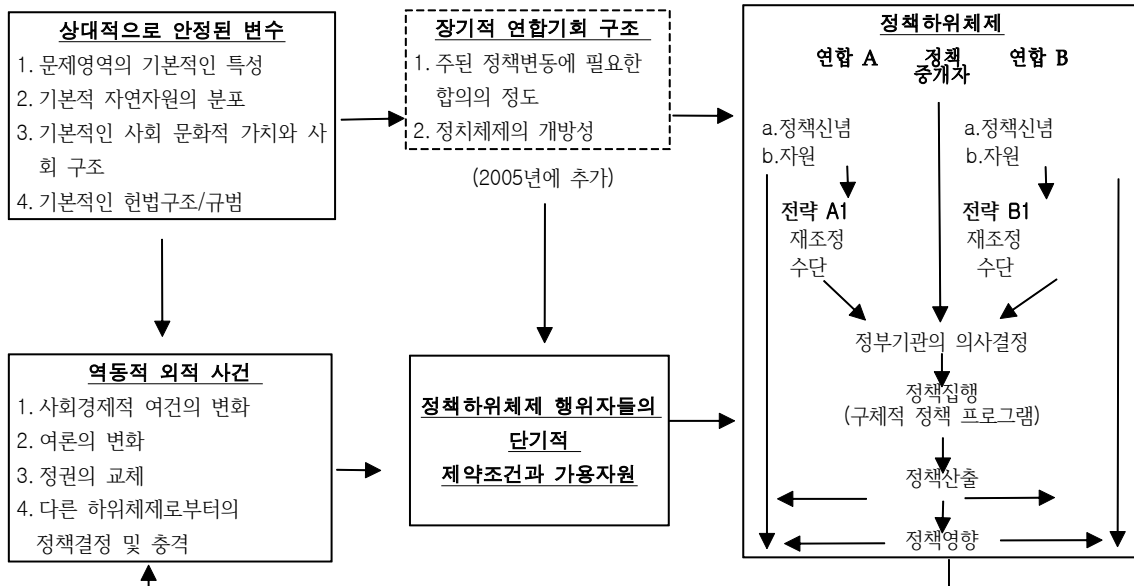
-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행위자들이 구조와 문화의 물질적, 이념적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Archer(1995)는 구조화된 존재인 인간의 행동 변화의 원인은 기존의 구조가 현재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즉, <구조적, 문화적 불일치>로 인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변경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상황논리를 제공하기 때문...
- Archer(1995)는 행위자(Agents)를 <'최초행위자(Primary agents)>'와 '공동행위자(Corporate agents)'로 구분한다. Archer가 정의하는 '최초행위자'는 스스로 이익을 조직하거나 체계화하지 않으며, 구조 형성과 재형성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공동행위자'>는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표현하고,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고, 사회 운동을 생성하고 의사결정에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Archer 1995). 따라서 구조적 불일치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공동행위자들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행위자의 발현적 층(emergent stratum)으로서의 고유한 힘이 바로 '행위자성(Agency)'이다. 형태발생적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안정성과 변화를 담당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찰적이고, 목적적이며, 촉진적 이고, 혁신적인 행위자성을 상정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구조, 문화의 변화나 유지뿐만이 아니라 행위자성 자체의 형태발생이나 유지가 이루어진다

[토론자 의견]

- ☑ 개인적으로 행위자성과 성찰, 즉 행위자성의 발현 과정에 대한 심리적, 미시적 분석이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이 신제도주의 등 다른 기존의 접근방식과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보다 차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 Archer(1995)는 <사회적 또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자원 분배의 구조와 물질적, 공동행위자로서 기득권 집단의 구조 사이의 변화하는 상호관계로 설명한다. 이러한 기득권 집단의 상호작용은 '교환 거래(exchange transactions)'와 '권력 관계(power relations)'를 특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은 '정치적 제재(political sanctions)', '유동 자산(liquid assets)' 및 '전문지식(expertise)'을 자원(resources)으로 동원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기득권에 맞서서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resources), 조직(organization), 반이데올로기(counter-ideology)가 필요한데, 그는 "지배적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충분한 수를 동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지배적 이념에 정당성을 가진 대항이데올로기가 개발 될 경우에만 기득권에 맞서는 공동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Archer(1995)는 공동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이러한 자원(부, 제재, 전문 지식)을 동원하는 '협상력(negotiating strength)'에 대해 관계적으로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협상력은 교환 상황에서 발생한다. 기득권 집단이 진정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자들과 특별한 관계에 서야 한다. 결국 '협상력'은 그 자체가 사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공동행위자들의 서로에 대한 새로운 '자원 및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적 용어(relational term)다. 이는 반드시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룹 간의 관계 측면에서 구체화 되며, 그 과정에서 조직적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적, 문화적 정교함의 형태에 해당하는 행위자성을 발생시킨다.

[토론자 생각]

☑ 이것은 아래에 제시되는 옹호연합모형(신제도주의)의 설명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림 1]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Sabatier & Weible, 2007:202)

☑ ACF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크게 보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이루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활동하는 ‘정책하위체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는 다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들(relatively stable parameters)’과 ‘보다 역동적인 변수(external/system events)’로 구분되는데, 이들 외적 변수들은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약(constraints)하거나 가용한 자원들(resources)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한편 정책하위체제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 가용한 자원들(resources)과 제약조건하에서 자신들의 신념체계(policy beliefs)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strategy A1; B1)을 구사한다....이것이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정책산출일 경우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변동된 정책은 다시 정책집행과정(institutional rules, resources allocations, and appointments)을 통해 정책산출(policy outputs)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영향(policy impacts)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정책하위체제의 내.외부로 환류된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 사회적 정교화

- ...Archer는 이러한 사회적 정교화의 실재를 구성하는 형태발생과 형태유지의 조건을 Lockwood(1964)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 개념1)과 앞서 제시한 구조-문화의 요소들 간의 네 가지 발현적 관계의 조건에 기반하여 <표 II-4>와 같이 제시하였다(Archer, 1995, 1996).

- Lockwood(1964)는 <‘사회통합’>을 행위자 차원에서 “개인, 집단이 미시적 수준에서 관계 맺는 양상”으로...<체계통합>은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 하위체계에 의해 이루어진 거시적 수준에서의 과정을 의미한다. Lockwood는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통합을 늘 조화로운 긍정적 상태로 보지 않고, 질서와 갈등 모두를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Lockwood, 1964:245-257).
-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통합과 체계통합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향적 결과들이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형태발생과 형태유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Archer, 1996)....

<표 II -4> 형태유지와 형태발생 시기

(When morphostasis versus when morphogenesis. Archer, 1995 p.295)

		높음	낮음		
사회적 통합 social integration	높음	필연적 상호보완 Necessary complementarity	필연적 양립불가능 Necessary Contradiction	→	형태유지 Morphostasis
	낮음	상황의존적 상호보완 Contingent complementarity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 Contingent Contradiction	→	형태발생 Morphogenesis
체계적 통합 (구조 또는 문화) system integration (structural or cultural)					

- Archer는 이러한 경향성이 개방적 시스템으로서 사회의 본질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연성(Necessity)과 상황의존성(contingencies) 조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으로 보완되어야한다고 언급한다(Archer, 1995).
- Archer(1995)는 이러한 문화적 영역과 구조 영역의 형태유지와 형태발생 사이의 관계를 <표 II -5>과 같이 네 가지 기본적인 조합으로 제시한다. 현실상황에서 이 네 가지 지형은 구분되고 단절되기보다 구조적, 문화적 조건과 행위자들이 가진 자원과 이를 활용하는 교환과 권력관계에 따라 이동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겪는다.
-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에서 구조와 문화는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 두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 다양성, 갈등, 재조직화의 상호작용을 거쳐 형태발생/안정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은 끝이 없이 일어난다. 구조적, 문화적 정교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어떤 동맹들이 그것이 추구했던 변화를 확고히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변화를 다시 조건화하여 새로운 상호작용 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표 II -5> 문화와 구조의 형태유지, 형태발생 사이의 기본적인 조합
(Archer, 1995. p.312~324 재구성)

(a) 문화적 형태유지와 구조적 형태유지의 연대	(b) 문화적 형태유지와 구조적 형태발생의 불일치
· 문화적 형태유지는 구조적 유지에 매우 도움이	·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행위자와 물질적 이해관
· 되는 이념적 환경을 발생, 구조적 형태유지는 문화적 유지에 기여하는 조직 환경을 조성	· 계가 구조적으로 차별화 된 다수의 공동행위자 사이의 불연속성
· 구조와 문화적 이익그룹이 현상 유지를 위해 협력	· 단일한 문화적 힘에 의해 시스템이 잘 보호되고 있으나 구조적 이익그룹이 성장하고 분화함
· 다원주의와 전문화가 부족하며, 반대파는 반체제적 견해를 표현하고 구조적 혼란을 자극할 능력이 없이 종속됨.	· 새로운 공동행위자들이 지배집단에 대항할 만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문화적 정교화를 유도
(c) 문화적 형태발생과 구조적 형태유지의 불일치	(d) 문화적 형태발생과 구조적 형태발생의 연대
· 하나의 강력한 구조적 행위자와 문화적으로 차별화 된 다수의 공동행위자 사이에 존재	· 구조, 문화 모두에서 경쟁하고 분화되는 조직적 그룹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 구조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
· 초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세력은 새로운 물질적 이익집단의 출현을 억제하면서 문화적 변화에 제동	· 최초행위자(primary agents)가 급속히 축소하고 이들이 다양하고 강력한 촉진적 이익 집단으로 변화.
· 결국 새로운 이상적 이익집단(ideal interest group)의 발전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구조의 안정성이 의존했던 문화적 통일성의 철회가 나타나게 됨.	· 다원주의와 전문화가 강화되어 과거의 구조적, 문화적 형태유지의 재생산을 막고 두 영역에서 공동행위자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재 조직화를 거쳐 새로운 형태발생으로 이어짐.

[토론자 생각]

- ☑ <모형의 복잡도>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 버리면 분석틀 자체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 연구자께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명한 형태발생론적 접근의 복잡 다단한 요소들이 연구에 실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셨는지요? 다른 말로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의 교육정책과정 분석에서의 가능성과 한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결론 및 논의 부분의 중요한 초점 중의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행위자성(agency)과 성찰(reflexivity)

-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에서는 구조와 문화는 개인에게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는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행위자를 통해 매개(Mediation)될 경우에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적 발현물(relational-emergents)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조와 문화를 매개하는 행위자들(agents)의 행위자성(agency)과 성찰(reflexivity)을 중요하게 다룬다.
- 먼저 Archer는 행위자의 발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person)을 자아(Self)-행위자(Agents)-활동가(Actor)로 발현되는 증화된 존재로 보았다. 여기서 행위자(Agents)는 '최초행위자(Primary

Agents)’와 ‘공동행위자 (Corporate agents)’로 다시 구분된다(Archer, 1995, 2000a). 이때 자아(Self), 행위자(Agents), 활동가(Actor)는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발현성을 분석적, 시간적 차원에서 구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성희, 2021).

- 첫 번째 층위인 <‘자아(Self)’>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개인적인 속성을 지닌 ‘나(I)’로, 인간 존재(human beings)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행위자(Agent)’>는 물질적, 이념적 자원과 관련된 우리의 위치(position)를 말한다(Archer, 1995, 2000a).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비자발적으로 배치된(Involuntaristic placement)’ 존재로서 자신의 의식이나 결정과 무관하게 놓여있는 그 위치의 사람들이 ‘최초 행위자(Primary Agent)’이다. 그런데 최초 행위자(Primary Agent)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내적 대화와 성찰적 인식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형성하고 집합적 위치를 극복하며 집단적 행동을 발전시키는 <‘공동 행위자(Corporate agent)’>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 <행위자성(agency)>이다. 따라서 최초 행위자와 공동행위자는 이전의 자아(Self)에 비해 ‘집합체(collectivity)’적인 성격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활동가(Actor)’>는 공동행위자가 구조,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획득한 상태를 의미한다. 활동가(Actor)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그대로 따르기(role-taking)보다, 성찰(reflexivity)을 통해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role-making) ‘헌신적인(committed)’ 행위자를 의미한다(Archer, 2000;이성희 2021, 150에서 재인용).
- 자아(Self), 행위자(Agents), 활동가(Actor)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자성(agency)’>은 개인적, 집단적 주체로서 행위자가 외부의 구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매개적 특성을 가지고 발현되는 힘(emergent power)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행위자의 ‘성찰(reflexivity)’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Archer, 1995; 이성희, 2021). Archer는 성찰을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internal conversation)(Archer, 2000)’이며 ‘다른 잠재적 행동과정을 저울질할때 심의하는 방식(Archer, 2007)’,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거나 역으로 사회적 맥락과 자신을 고려하는 정신적 능력의 정기적 연습’으로 정의하였다(Archer, 2012). 그는 인간의 성찰이 사회구조의 제약과 인간의 자유 의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Archer(2012)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성찰의 유형을 ‘의사소통적 성찰(communicative reflexivity), 자율적 성찰(autonomous reflexivity), 메타 성찰(meta-reflexivity), 균열된 성찰(fractured reflexivity)’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 Arche(2012)의 위와 같은 성찰에 대한 탐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개인적 성찰(personal reflexivity)’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어 Donati와 Archer(2015)는 성찰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개인적 성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즉 어떻게 성찰이 관계적으로 발현되는가 대한 <‘관계적 성찰(relational reflexivity)’>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결정에 참여하고 실천을 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서를 고려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가치와 규범, 정서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적 성찰은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메타적 성찰’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Donati & Archer, 2015; 남미자 외, 2020, 49에서 재인용). Donati와 Archer는 성찰을 <‘개인적 성찰’>과 <‘관계적 성찰’>로 구분하고 개인적, 관계적 성찰이 모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관계적 주체’가 확립된다고 말한다(Donati & Archer, 2015; 이성희 외, 2021). 여기서 <개인적 성찰>이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하거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관계적 성찰>은 ‘자신과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

향 혹은 그 역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적 성찰이 통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적 요소와 힘을 생성하는 '관계적 주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Archer, 2012; Donati & Archer, 2015; 이성희 2021, 267에서 재인용).

<표 II -7> 성찰의 네 가지 유형과 특성. (Archer, 2012; 이성희, 정바울, 2015, 199에서 재인용)

성찰의 유형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
의사소통적 성찰 (communicative reflexivity)	행동으로 이끌기 전에, 내적인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완료되어야 함	공동성
자율적 성찰 (autonomous reflexivity)	내적인 대화가 자립적이며, 즉각 행동으로 이끌	이해관계
메타 성찰 (meta-reflexivity)	내적인 대화를 통해 기존의 내적인 대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적임	가치
균열된 성찰 (fractured reflexivity)	내적인 대화가 의도적인 행동 방침으로 이끌지 못하고 개인적 고통과 방향상실감을 더욱 강화하여 이것이 표출되는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남	의존

[토론자 생각]

- ☑ 형태발생론적 접근 중에서 기존의 분석틀과 중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 ☑ 행위자의 고려, 구조와 문화적 조건화라는 부분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기존의 접근방식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다만 <행위자성과 성찰>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방식(역사적 신제도주의, 옹호연합모형 등)에서 간과하고 있는 미시적 차원을 보다 정교화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 질 때 이 접근방식이 교육행정학의 지식과 이론 생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접근방식은 미시적 차원의 분석, 즉 교사 개인이 어떻게 개혁에 눈 떠서, 다른 동료들을 개혁에 동참시켜 개혁을 성공해 나가는가 라는 미시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효한 접근방식이라는 생각이 듦.
- 이상과 같은 Archer의 형태발생론, 행위자성과 성찰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의 실행의 분석에 의미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즉, Archer의 이론은 교육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기존의 교육 제도와 행정 체계, 그리고 학교가 가진 구조와 문화의 인과적인 영향과 상황논리를 파악하고 행위자들이 행위자성과 성찰을 매개로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포착하는데 유용한 틀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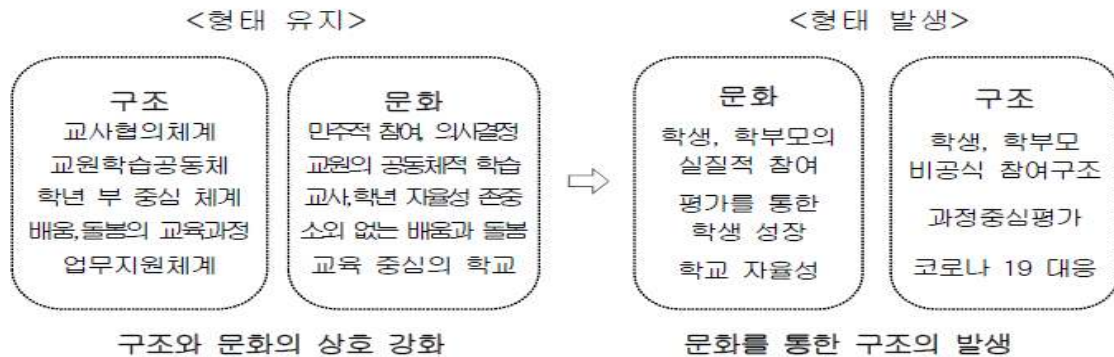
III.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들

1. 분석틀과 관련된 전반적 생각

-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정말 알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과정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 및 그 들간의 관계(발생기제)의 파악”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였을까? 앞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통해 소개한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이 이 사례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을까? 연구수행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요소는 무엇이며, 이론적 배경을 위해 장식처럼 존재하는 요소는 무엇이였을까?
- 일단 논문을 읽고 난 토론자의 생각은 연구 목적에 비해 분석의 틀과 분석결과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 라는 것이었음. 또한 현재 기술된 내용은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에 의식적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경직되고, 논리도 매우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음. 특히 구조, 문화의 필연적-상황의존적, 상호보완성-양립불가능성 등과 상황에 대한 분류는 분석을 위한 좋은 틀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예시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연구자가 굳이 이 틀에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연구자가 정말 알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분석의 생동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표 V-2>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 논리에 따른 행위의 다각화

상황논리에 따른 행위 경향 (Archer, 1995)			산, 들중학교의 행위
구조적 조건	상황논리	행위	
필연적 - 상호보완성	보호, 이익의 보호	방어적	⇒ 교육적 가치의 보호
필연적 - 양립불가능성	타협, 수정 혼합	양보적	
상황의존적 - 상호보완성	기회주의, 실질적 자유	기회주의적	기회의 확대
상황의존적 - 양립불가능성	제거, 선택의 강요	경쟁적	위기의 대응



[그림 IV-11]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결과 형태유지, 형태발생의 관계

- 제가 일독을 권해드린 한동대 사례연구에서와 같이 <관심 현상>(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과정)이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맥락>, 예컨대 (1) 외부적 환경 - 구조 & 제도, (2) 학교의 조직적 특성(학교의 제도, 문화, 물리적 환경, 구성원의 특성 등) 하에서 어떻게 형성, 유지, 변화되어가는지를 보는 것으로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즉 A, B 학교라는 맥락에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그들간의 관계 - 발생기제) 때문인지?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연구수행을 위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

2. 구조와 문화의 구분 기준과 다층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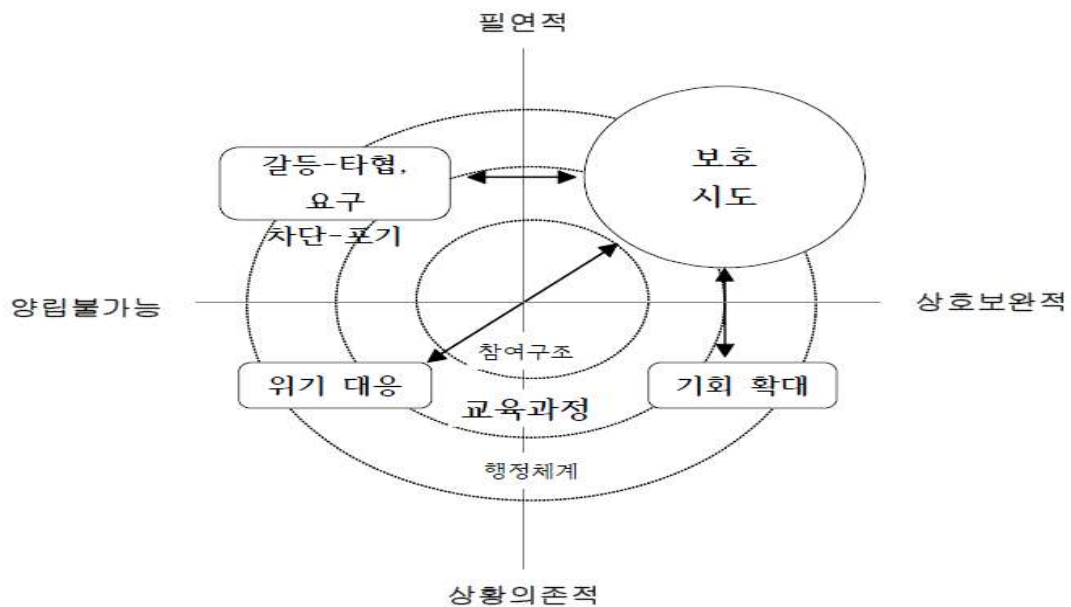
<표 IV-2>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

구조적, 문화적 조건(T')			
교육 행정 체계와 문화 (구조) (문화)		학교의 구조와 문화 (구조) (문화)	
·중앙집권적 행정 통제 (교육행정시스템, 학교 회계제도, 교장승진제도, 교원인사제도, 감사제도) ·교육부, 교육청 공모 사업	·지침, 규정 준수 ·행정적 관행 유지 ·행정적 공정성 논리	필연적 상호보완성	
		·혁신학교-혁신자치학교 정책 ·교원 협의회-학생, 학부모 협의기구 ·교원학습공동체- 학교 교육과정	·혁신학교 유지-성장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학생, 학부모 참여 중시 ·교원의 공동체적 학습-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필연적 양립불가능성	
혁신자치학교 정책 (구조) (문화) ·혁신자치학교 정책 ·학교 자율권한 확보실패 ·예산, 인력(산중학교)지원, 외부 연구·컨설팅, 포럼	·혁신학교 유지-성장 ·3주제 참여 교육과정 ·교육청 내 정책에 대한 이해, 협업 부족	·중앙집권적 행정 통제 -분권적 전문가 통제 ·경쟁과 선별의 입시제도-학생 평가	·지침, 규정 준수 - 학교 자율성 추구 ·행정적 공정성-학교의 고유성 ·지식 중심의 학력관-배움과 성장 중시
		상황의존적 상호보완성	
		·교육부, 교육청 사업-학교 교육과정 ·공식적 학교 참여 기구(학교운영위원회)-비공식적 참여 구조	·학습격차, 기초학력 보장 달론-돌봄, 소외 없는 교육 ·행정적 관행 유지-실질적 만남과 소통 중시
교육제도와 사회적 인식 (구조) (문화) ·국가교육과정 ·경쟁과 선별의 입시제도 ·코로나 - 등교제한, 집합금지 ·학구조정-거주지 분리(들중학교)	·성적중심의 학력관 ·교육적 효율성 추구 ·코로나 방역 우선 ·학습격차, 기초학력보장달론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성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학교교육과정 ·남녀공학 전환-학생 거주지 분리와 불명 등 심화	·방역 우선-학생 돌봄 중시 ·효율성 추구-평등 추구

- 실제 연구수행과정에서 형태발생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문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요?(<표 IV-2> 참조) 이를 구분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토론자가 보기에는 이 연구에서 적용한 구조(혁신학교 정책)와 문화(혁신학교 유지-성장)의 구분이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인지요?
- 또한 아처의 형태발생론에서 제시하는 구조와 문화는 앞에서 제시한 노명순(2006)에서 적용한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구조,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아울러 (1) 학교 내부의 구조와 문화와 vs. (2) 학교 외부(교육청, 지역사회, 전체사회)의 물리적 정책적 사회적 환경은 어떻게 분석에서 체계적으로 구분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요?
- **연구자는 “정책의 기획과 운영계획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다층성이 강하다는 점이다.”**라고 했는데, 구조의 다층성(예컨대 조직의 구조/문화 vs. 외부 지역사회/전체 사회의 구조/문화)은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을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입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구조의 다층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그것이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의 도출에 어떤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3. 사례연구와 맥락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를 ‘사례연구’라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례가 위치하고 있는 ‘맥락’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림 V-1] 혁신자치학교정책 실행의 상호작용 과정의 특징

- 연구자는 산, 들학교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의 특징이 다른 혁신자치학교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연구자가 생각하는 사례연구에서 “관심현상(혁신자치학교정책 실행)”이 위치하는 맥락의 개념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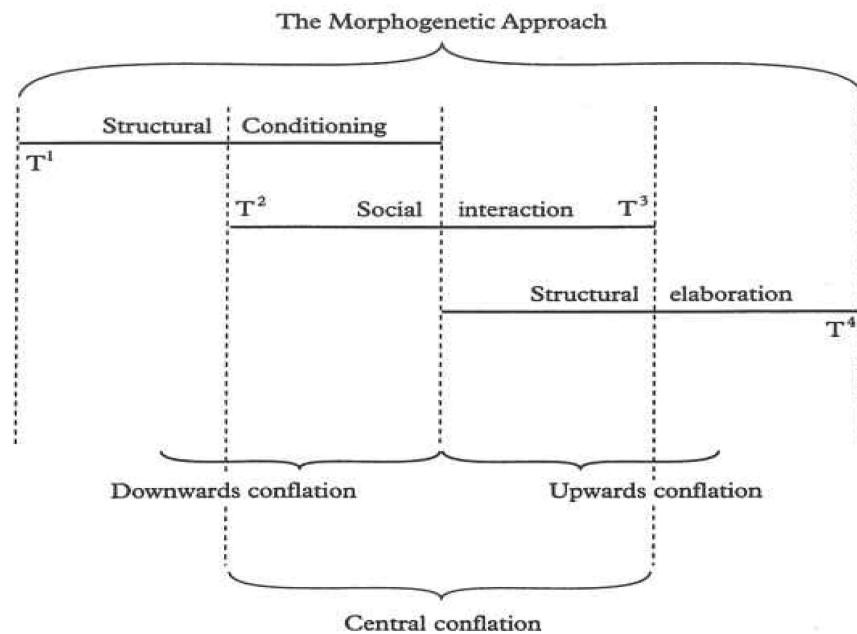
-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왜 산학교, 들학교 2개교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을까요? 이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심현상(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맥락이 다르면 관심현상이 발현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를까? 혹은 맥락이 다른데도 동일한 발생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학교를 선택한 것 아닐까요?
- * <관심현상> = 혁신자치학교 실행과정(특징과 성공요인과 그들간의 관계 = 발생기제의 탐색)
- * <맥락> 같은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인 “산학교”와 “들학교”가 가진 맥락은 무엇인지요?
-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 t 시점에서 주어진 제도(혁신자치학교 정책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 - t-1 시점에 형성된 것)는 t 시점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영향을 미치는)하는 맥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이 연구에서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로 제시된 구조와 문화들은 한동대 사례연구에서는 “해당 대학이 가지는 조직적 특성” 혹은 “해당 대학이 당면한 환경, 제도, 문화” 즉 맥락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접근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연구자의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어요.

<표 IV-3>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의 사회적 정교화

사회적 정교화	문화	구조	
		산중학교	들중학교
문화 안정 - 구조 안정 : 형태유지 → 지속가능성 확보	교원 중심의 합의적 의사결정	안정적인 교사협의체계	
	소외 없는 배움과 성장, 돌봄 중시	수업연구중심 교원학습공동체 학년 부 중심 체계	
		배움과 돌봄의 교육과정	
문화 안정 - 구조 형성 : 흡수, 형식화	교육 중심의 학교	업무지원체계	
	학부모 참여	학부모 자치 조례	
문화 형성 - 구조 안정 : 점진적 변화, 제약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참여	학운위 학생 참여 - 학운위 관행 유지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	평가 혁신 시도 - 입시 제도의 제약	
문화 형성 - 구조 형성 : 새로운 구조 생성 → 형태 발생	학교 자율성 확대	행정간소화 시도 - 행정 지침 및 규제의 제약	
	학생, 학부모 참여	비공식 참여구조 형성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	과정중심평가, 성취인증제	
	학교 자율성 확대	코로나 19 대응	

4. 초점이 되는 연구의 대상과 적절한 분석 기간

- 2~3년 정도 실행한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운영 기간이 구조의 정교화로 이어지기에는 온전한 시간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정교화라는 것은 경향성과 가능성, 즉 이전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Archer의 관점을 바탕으로 특정 정책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정책의 상호작용과 정교화를 면밀하게 파악해 갈 때 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II-1] 형태발생론적 접근과 제한된 시간 범위의 융합 이론. Archer, M(1995), p85.

- 그림 [II-1]에 따르면 관심 현상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석 시기를 설정하여 해당 시기의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일 연구에서 이 모든 시기의 연구를 철저히,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연구 전략전략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특히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의 연구에서 아처가 제안한 전 과정을 모두 분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례연구는 “동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contemporary phenomena)”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관심현상 + 이것이 발생하는 특정 맥락 = 사례)이기 때문에, 이미 $t-1$ 단계에 형성된 “혁신자치학교 정책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t 시점에서는 사실상 주어진 맥락)”을 현재 시점에서 t 시점의 상호작용 만큼 동등한 비중으로 연구하기는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현 시점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범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즉 타당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토론자가 보기에는 아처가 제안한 것은 “사회제도나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

향해야 될 목표”로 설정하되, 특정한 하나의 연구에서는 광범한 분석 기간 중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예컨대 각각의 연구를 통해 (1) t 시점에서 주어져 있는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이 t-1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역사적 연구(T1 시점 - 이것은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참여관찰 등이 불가)를 하거나, (2) 1차 사례 연구(T2 시점)를 통해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이 때는 이것이 맥락으로 작용)”이 주어져 있는 가운데 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담아내는 연구를 하거나, (3) 2차 사례연구(T3 시점)를 통해 이러한 상호작용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축적되어 결과(제도의 정교화)를 도출했는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 시기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과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성격상 정책 실행이 학교 운영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 집중되거나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71쪽)
- 이걸 연구자가 지나치게 아쳐의 형태발생론의 분석틀에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알고 싶었던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말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쳐의 분석틀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방해가 된 부분은 없는지 연구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련해서 아쳐의 분석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정책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자께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지요?

5. 질적연구의 일반화

-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에 입각하여 분석의 틀을 구안, 적용한 연구 설계와 분석을 통해 사례 연구로서의 분석적 일반화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 이 연구 결과 나타난 정책 실행 과정의 특성을 전체 혁신자치학교나 다른 학교 자치 관련 정책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 결과의 일반화란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일반화 즉, 이론에 비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Yin, 2014)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71쪽)
- 토론자가 생각하는 질적연구에서의 일반화 논리, 즉 <분석적 혹은 이론적 일반화>는 “맥락”과 “전이가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있음.
-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론에 비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Yin, 2014)”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일반화에서 관심현상이 놓인 “맥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

❖ 질적연구에서의 일반화 논리(변기용, 2020, 82쪽)

...지속적 비교와 성찰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근거이론적 방법에서 이론화(일반화)의 요체는, 과거에 특정한 맥락에서 산출되었던 맥락기속적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가능성과 방법을 판단하는 적극적인 성찰의 과정이다. 즉 (1) 해당 지식이 창출되었던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 대한 이해와 (2) 창출된 지식이 적용될 새로운 맥락적 조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지식이 창출된 맥락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것이다(Greenwood & Levin, 2007/2020).

이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적용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문가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교사의 경우를 예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경험 많은 우수교사는 매년 다른 학급을 담당하면서 새로 맡은 학급의 학생에게 무엇이 효과적 교수방법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실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각 교육청에서 소문난 유능한 교사들은 다년간의 교직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맥락(예컨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새로 맡은 학급)에서도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력(암묵지, tacit knowledge, knowing how)을 바탕으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인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다. 이는 양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검증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것 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6. 현장 교사, 연구자와의 소통을 위한 용어 선택의 문제

이는 Acher(1995)의 상황논리에 따른 행위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경쟁하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일반적인 사회 집단을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두 학교는 4년~8년간의 혁신학교를 거쳐, 2~3년간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 곳으로 Acher(1995)가 전제한 사회 집단과 달리 교원들 사이에 공유된 이념과 문화가 존재하고, 교사리더들이 학교 내에서 공동행위자로서 이념적 우위에 서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가 처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자성을 발휘한 결과, 일반적인 사회 집단과 다른 상호작용과 행위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줄친 부분은 토론자가 알고 있는 “통상적 언어”로는 그냥 “(혁신학교로서의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학교에는) 혁신지향 문화와 리더십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공동행위자로서 두 학교의 혁신부장을 포함한 리더교사들의 행위자성(Agency)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권한의 확장을 위해 의도적이고 지속

적으로 학교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관계적 행위를 한다....이는 이들이 공동행위자로 교육활동을 해나가는 데 ‘관계’가 중요한 자원으로서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의 유지와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데 저항을 줄이고 동동의 실천을 도모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형태발생론적 접근에서 이러한 관계적 주체들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공공선(common good)을 생산해내는 사회적 관계를 발현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것과 차별화 되는 ‘우리’만의 새로운 목적, 수단, 규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Donati & Archer, 2015; 이성희 2021, 133에서 재인용).

- 여기서 말하는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에서 말하는 행위자성, 관계적 행위, 관계적 자원 등은 토론자가 알고 있는 “통상적 언어”로는 그냥 “변화 선도자가 행하는 리더십, 특히 동료교사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공동 학습기회 창출 등 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교사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공감대의 형성 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 현장 교사, 실천가, 연구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평이한 용어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